

2012년 설비투자 4.1% 증가

대한상의, 1101곳 중 23.3%가 줄여 ... 경기둔화 우려로

2012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2011년에 비해 4.1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1011곳을 조사한 결과 2012년 설비투자를 평균 4.1% 확대할 계획이며 2010년 조사 결과인 6.1%에 비해 2%p 하락했다고 12월20일 발표했다.

대기업이 5.6%, 중소기업은 3.3%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업종별로는 철강·금속이 1.8%, 음·식료 0.1%, IT·전기전자 2.5% 등 대부분의 투자 상승폭이 2011년보다 낮았으나 자동차 10.9%, 섬유·의류·신발 5.4% 등의 상승폭은 2011년에 비해 확대됐다.

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1.4%이며, 15.3%는 2011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23.3%는 줄이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.

투자를 줄이려는 곳은 57.4%가 국내외 수요부진, 36.2%가 투자과잉을 이유로 들었으며, 73.5%는 경기전망 불확실성이 투자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.

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“국내외 경기둔화 우려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12/20>